열렸다! 사이버 부처님 세상

1사찰 1홈페이지 갖기운동 '열기'

2백여 사찰 회원가입 자동생성기 위력 과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로 구성된 '인터넷 불교'의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에 동참한 사찰들의 홈페이지가 5월 1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정식 가동됐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펼치는 이 운동에는 본지 보도(4월 11일자 제314호) 이후 2백여 사찰이 회원 가입신청을 했다. 이들 사찰은 5월 1일부터 홈페이지 자동생성기를 통해 홈페이지를 구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찰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다양한 감각으로 불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동참한 사찰은 충남 지역의 수덕사와 마곡사 말사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전국에서 가입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인터넷 불교'는 회원들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버 용량확대와 각종 제휴를 통한 컨텐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공주 명지장사 주지 노휴 스님은 "가입 절차가 간단해 사찰에서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운영도 편리하다"며 "홈페이지에 구현되는 20여 가지의 메뉴들을 적극 활용하면 포교와 사찰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가입하나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은 '인터넷불교'와 현대불교신문사의 부다피아 기술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홈페이지자동생성기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운동에 동참해 사찰 고유의 홈페이 갖기를 원하는 사찰은 대표 도메인 http//www.B3.to 혹은 http//www.buddhapia.com에서 인터넷불교의 홈페이지 갖기 운동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비(월 9천원, 1년 10만원)를 송금하면 홈페이지자동생성기 설치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받게 된다. 사찰에서 컴퓨터에 설치프로그램을 구현시키고 대표도메인에서 사찰의 주소를 부여받는다. 사찰의 주소는 http//www.○○사.B3.to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주소를 부여받은 후 프로그램에 따라 사찰의 정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가 완성된다.

사찰에서 자료 입력과 동영상 관련 작업,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넷 불교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어떤 기능이 있나

인터넷 불교에서 자동 생성되는 사찰 홈페이지는 사찰 홍보, 종무행정,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 20여 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사찰 홍보 관련 메뉴는 찾아오는 길, 사찰 및 주변 소개, 주지스님 소개, 전각 건물 소개 등의 기본 틀이 구축되어 있다. 사찰의 최대 관심사인 종무행정 관련 메뉴로는 웹연등 접수, 신도 관리, 기도관리, 기도 예약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구현된다. 또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거나 알림 사항을 보내는 기능도 있다. 쪽지 보내기 기능은 스님과 스님간의 공지 사항 보내기도 가능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일정 등을 공지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사이버 인등과 사이버 영단, 법문 듣기 등의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사찰의 홈페이지에서 대표도메인으로 링크하면 각종 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부다피아로 링크하면 현대불교가 제공하는 붓다뉴스와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 마하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에 동참하면 사찰의 개별적인 서버구입이 필요없으며 기술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 사찰에서 필요할 때마다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완벽에 가까운 보안성도 '인터넷 불교'가 내세우는 자랑거리다.

홈페이지의 초기화면과 각 메뉴들의 디자인은 현재 개발된 10여 가지에서 언제든지 선택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 인터넷 불교는 100여 가지의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가발해 선택의 폭을 넓혀 갈 방침이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그래픽 · 최정근

인터뷰 '인터넷 불교' 설립주역 진허스님

"정보시대 앞서가기 주춧돌"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로 구성된 '인터넷 불교'는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전개를 통해 전국 사찰의 홈페이지 갖기를 발원했다. 3월 26일 정식 출범한 '인터넷 불교'는 이 운동과 아울러 불교정보 네트워크 구성과 사찰 종무행정 및 포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불교' 구성의 주역은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이었다. "인터넷은 선(禪)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진허 스님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래머들에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 선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에서는 고정관념을 거부합니다. 파격이 있어야 자성을 개오 하는 선의 취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들의 일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인터넷 환경도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경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같은 흐름에 가장 능동적이고 선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불교를 구성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찰이 홈페이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찰이 인터넷에 또 하나의 사찰을 세우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많은 사찰들이 여건이 미비하거나 관심 부족으로 인터넷 세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착되면 포교는 물론 변화해 가는 삶의 방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불교는 광대무변한 불교의 세계관을 현실화한다는 마음에서 발원했으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흔쾌히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본사도 있는데….

▲거의 모든 본사 주지스님들이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회장단에 합류할 것으로 믿습니다.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은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많은 사찰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한 교구본사가 각 말사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 갖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 할 것입니다. 기술과 자료 지원이 필요한 사찰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우선은 사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펼치고 하반기부터는 불교관련 업체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향다운 향으로 공양올립시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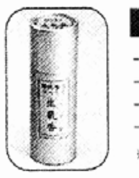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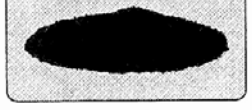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 02)538-7161, 016-756-2227 http//: www.hyangbang.com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환자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 2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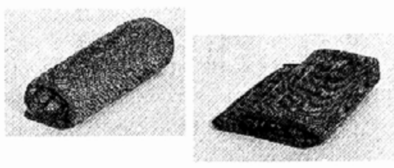
32종의 한약재

※ 석씨향방 제품은 주문하시는 형태로 다양한 크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 4kg



※고객취향에 따라 다양한 모형으로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금주 : 김남서

정휴 엮음 / 127면 / 값 5,000원

가슴을 데워야
江이 열리고
그리움이 깊어야
山이 움직이네
바람이 잔설을
몇 번 쓸고
잠 못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몸을 뒤척이면
저렇게 꽃은
문을 열고
바람과 함께
소요하며 오는 것을

죽어서 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 禪詩(임종게)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남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앉아서 열반하기가 싫어 서서 입적하는
해탈의 몸짓이 있으며, 걷다가 문득 명상에 잠겨
보리수 잎을 잡고 입적하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게 속에는 해탈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禪師들의 열반 詩

정휴 엮음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입적하여 열반이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정휴스님 신작수상집

적멸의 즐거움

禪師들의 入寂과 임종게를 중심으로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치 말라. 그리고 부도와 탑을 만들지 말고 시신은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청활선사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적멸의 즐거움 본문중에서

작은책 / 정휴 지음 / 336면 / 값 3,800원

전화 I 313-5047 팩스 I 393-9696 우리출판사